

# 고창 '영농 정착 지원' 청년 몰린다

18~39세 초보 농부 양성을 위한 72명 신청...매년 증가세 11명은 서울 등 타지역 청년 청년농 육성 선도 모델 주목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해 열린 고창 청년창업농 공감토크콘서트에 참석, 참가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젊고 유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몰렸다. 고창군은 올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마감결과 모두 7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다.

고창군은 2018년 사업시행 후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청년농 육성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청자 중 11명은 서울 등 광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향후 고창군에 정착해 농업경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만 18~40세 미만 청년 중 향후 5년간의 영농계획서와 면접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 8기를 맞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상향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초보청년농부 성공

모델 구축(총사업비 8000만원), 농촌청년 창업활성화 사업(8000만원), 기업승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6000만원)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성을 추진 중인 '고창형 스마트팜단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적정 이용료로 임대함으로써 초기 높은 투자비용으로 도전이 어려웠던 스

마트팜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이 더욱 전문화된 교육으로 경영능력을 키우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 작은도서관 5곳 학교 밖 늘봄기관 선정

돌봄교실·창의놀이 등 연말까지 27개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중 5개소가 정읍교육지원청 주관 '2024년 학교 밖 늘봄기관'에 선정돼 초등학생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도서관사업소에 따르면 관내 총 13개 작은도서관 중 ▲상동 ▲수목동 ▲용달샘 ▲수성 ▲다문화 등의 작은도서관 5개소가 '학교 밖 늘봄기관'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총 27개의 과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상동작은도서관은 '돌봄교실', '창의놀이', '미술이랑 공예랑' 등 4과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어 수목동작은도서관은 '책으로 크는 아이',

'실력한자', '영어그림책' 등 9과목을, 용달샘작은도서관은 '컴퓨터로 배우는 일러스트', '3D프린터', '프라모델 체험교실' 등 6과목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다.

수성작은도서관은 '꽃담 요리', '보드게임', '화분만들기' 등 4과목을, 다문화작은도서관은 '놀이체육', '토탈공예', '미술교실' 등 4과목을 운영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교육 경험의 장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쉼터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복분자 신규 농가에 토양검정 지원

농기센터, 비료 맞춤 사용 처방...흙 담아 읍·면사무소에 접수

고창군이 본격적인 복분자<사진> 신규식재를 앞두고 복분자 신규식재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발급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복분자 재배 예정지에 대해 2월 한 달 동안 전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복분자 신규 식재 농가들은 토양검정을 통해 맞춤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받고, 토양 상태를 미리 확인해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식재 농가는 경작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양시료 봉투를 배부받아 복분자 신규식재 예정지의 토양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토양시료는 필지의 5~10개 지점에서 채취한다. 표면에서부터 뿌리가 분포하는 15cm 깊이까지 고



르게 채취하고, 각 지점에서 채취한 흙을 잘 섞어 약 500g을 시료 봉투에 담아 경작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 농업 핵심인재 양성

'단풍미인대학' 교육생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는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2024년 단풍미인대학' 교육생을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단풍미인대학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온라인 마케팅, 농산물가공창업 등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 경영과 지식기반 농업에 적합한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단풍미인대학은 3월 개강해 10월까지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체계와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교육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과정별 20~25명으로 4개 과정 총 85명이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 과정', 블로그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 능력을 키우기 위한 'e-비즈니스 과정', 청년 농업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 CEO 과정', 농산물가공창업 마케팅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창업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생은 과정별로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 교육 등 총 13~18회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음식+명소 '미식 관광코스' 개발



남원시가 문화가치를 지닌 남원의 관광자원과 융합한 미식 관광산업을 활성화에 나선다. 남원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형 원푸드 생태계 활성화

전문가·일반인 대상 의견 수렴

남원시가 지역의 멋과 맛이 담긴 남원 만의 미식 관광코스 개발에 나선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전주대학교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돼 '남원형 원푸드(One-Food) 지역 생태계 활성화'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전주대학교 K-푸드산업연구소와 함께 미식 관광코스를 개발, 문화가치를

지닌 남원의 관광자원과 융합한 미식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즐겨 찾는 맛집, 메뉴, 카페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식 관광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모집해 남원시 대표 관광지, 맛집, 카페 등으로 구성된 팸투어를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점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나아가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과 디지털 메뉴를 개발하고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미식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남원시, 임신·출산 행복도시 만들기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다자녀 가정 300만원 지원

남원시보건소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모자보건사업을 대폭 확대해 저 출생 대응에 앞장선다.

남원시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지원횟수도 2회까지 4회 확대하는 등 임신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임신, 출산, 영아의 건강관리도 확대 지원된다.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임신중독 등 19대 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청,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영아기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100만원을 증액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도 지원단가를 월 1만원씩 상향해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집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다동이 가정은 기존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임신전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